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1. 16 | 통권 제33호(2012-21)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방향

[요약]

-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2012년 6월 현재 210,99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초기 적응단계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통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간 연령격차가 크고 저소득 계층이 많으며 빈곤경험률이 30~40%에 이르고 있어 취업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가사부담이나 서투른 한국어 능력, 직업능력의 한계 등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직업훈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취업성고가 그리 높지 않고 대부분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도 높지 않은 실정임.
- 부부간 연령 차이가 매우 커 시간이 흐를수록 가계의 소득주체가 결혼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노동시장 통합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자녀 돌봄 지원, 자녀세대의 교육지원, 가정의 소득안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입각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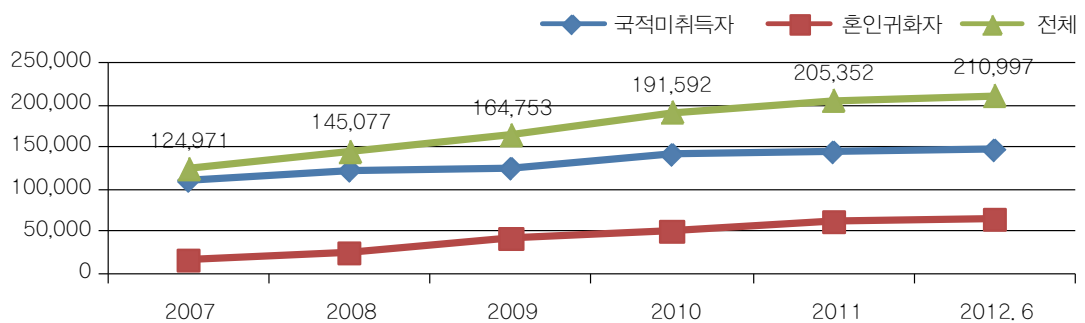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 결혼이민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취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2007년 124,971명에서 2012년 6월에 210,997명으로 증가함.
 - 결혼이민자 중 국적 취득자는 33.0%로 전체적으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가장 많으나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대비 국적 취득자 비율은 대만이 5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 49.8%, 비한국계 중국인 39.7%, 필리핀 38.4%의 순임.
-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2.6%¹⁾로 결혼시기가 오래될수록 취업률이 높음. 결

혼초기(1~3년 미만) 취업률은 8.1%이고, 3~5년차의 취업률은 18.0%이며, 5~10년차의 취업률은 32.8%, 그리고 10년 이상된 자의 취업률은 48.0%로 나타남.

- 취업한 여성의 직종은 대체로 단순직종이 많고,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90만 원 수준이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4시간임을 감안하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다소 상회함.
- 일을 하는 주된 이유로 '가계에 도움'이 26.7%, '생활비 부족'이 24.7%, 그리고 '가족의 생계 책임'이 18.6%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미취업자의 71.4%는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미취업 이유로 '집안일, 자녀양육이나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말이 서툴러서'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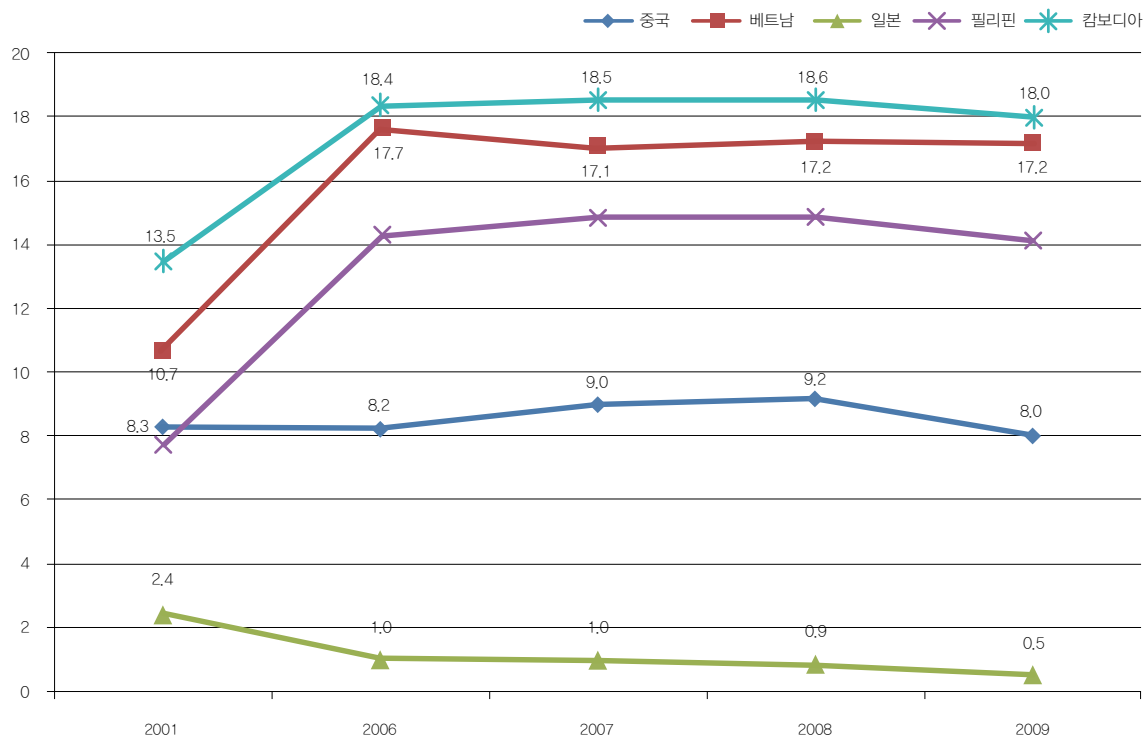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민자 추이



자료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2년 6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 여기서 취업률은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이 수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2009년 전수조사에 입각하여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37%로 나타남.

[그림 2]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부부의 연령차이



자료 : 혼인신고자료(각 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0), 「이민 및 외국인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미발간) 중 김이선의 원고에서 재인용.

‘배우자나 시부모의 반대’ 9.4%,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8.3% 등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의 목적도 경제적인 이유가 1/3을 차지하고 있고, 송금액을 종속 변수로 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결혼 이민자의 월평균 임금이 송금액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결혼이민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0만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분위별 가구소득의 2~3분위에 해당함.

- 소득수준을 배우자의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40대와 50대에는 소득이 하락하는데 이는 이들 배우자들의 직종이 생산 및 단순직 등 주로 저소득 생산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10년 후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문제(46.3%)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 및 취업문제(35.5%)이며,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

-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즉 남성과 여성 간 높은 연령격차, 결혼이민자의 낮은 직업능력, 배우자의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내국인 가정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클 가능성이 있음.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실태

- HRD-NET자료를 이용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직

업훈련 실태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939명이 총 1,376건의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 직업훈련의 평균 참여횟수는 1.4회이며, 최대 직업훈련 참여횟수는 7회이고 이들이 참여한 훈련분야는 주로 음식·조리, 컴퓨터·전산, 한국어, 이미용·피부 분야임.
- 2010년 참여훈련생의 훈련수료율은 79.5%이고, 중도탈락률은 14.3%이며, 취업률은 22.3%임. 2011년은 분석시점(11월) 현재 훈련 중인 자를 제외한 중도탈락률은 11.3%이고, 수료자 대비 취업률은 9.6%임.

〈표 1〉 직업훈련 후 취업한 결혼이민자의 취업직종

(단위:명, %)

			취업자		수료자
			명	%	
2011	직종	한국어	2	2.7	73
		이미용·피부	4	5	80
		네일아트	2	5.4	37
		컴퓨터·전산	24	9.6	251
		간호	3	9.7	31
		제과제빵·떡	3	13.6	22
		통·번역	8	19.5	41
		바리스타	1	5	20
		무역·회계·전산실무	7	20	35
		음식·조리	25	10.1	248
		봉제·의류수선·홈패션	1	2.9	35
		사무·사무능력	10	16.9	59
		기타	1	7.7	13
		전 체	91	9.6	94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원자료.

- 2010년 수료자의 취업직종은 이미용·피부직종이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전산(31.4%), 무역·회계·전산실무(27.3%) 순이며, 2011년에는 무역·회계·전산실무가 20.0%로 가장 높고, 이어서 통·번역 19.5%, 사무능력 16.9%, 제과제빵·떡 13.6% 순임.

- 취업한 116명의 자료를 고용보험 사업장 DB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58개 일자리만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었음. 이들의 취업사업장 규모를 보면, 32명(55.2%)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의 84.4%가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임.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방향

■ 맞춤형 정책방향 설정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초하되, 결혼이민자가 갖는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접근함.
- 이는 결혼이민자가 단순히 경제적 주책임자 혹은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지

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배려해야 함을 의미함.

- 정책대상을 결혼이민자로 국한하지 말고 이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이나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시각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 가정을 소득상태나 가정내 상태(이혼, 사별), 학력별 격차, 일·가정 양립 문제 등을 고려한 목표집단화가 필요하며, 각 목표집단에 적합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을 볼 때 물량 면에서 보면, 충분한 정책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심지어는 내국인 취약계층에 비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많은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체감성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점도 한 원인임.

- 현재와 같이 각 정부부처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각의 집행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정책 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상별 그리고 정책수단별 매트릭스형 결합을 통해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관련한 정책수행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및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의 보완성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또한 기존 연구나 현실의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지만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함.
 -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의 부재, 결혼이민자의 훈련역량의 미흡,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한계, 훈련 후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훈련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인식의 결여, 훈련 후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정 내 제약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기인함.

- 취업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일을 통해, 혹은 직장체험을 통해 한국사회, 직업의 특성, 직장 내 문화를 경험하도록 인턴십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임신·출산·육아 등 전형적인 M자형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영역대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취업지원보다는 취업에 대한 적응과정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확충해야 함.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주로 결혼 초기 젊은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국 거주기간이 상당히 지난 중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

런 프로그램을 생애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함.

-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가구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여성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므로 육아 및 자녀 교육, 집안 살림 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가사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재택근무(home-based work) 또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전일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 특히 상대적으로 일자리 여건이 더 열악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농촌에 살면서 가사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군, 예를 들어 마을 노인 돌봄 도

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다문화강사, 어린이집 강사 등의 직종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방안의 선결과제로 육아 및 자녀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육아 문제가 취업 참여 및 노동시간, 취업 교육 등 모든 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3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농촌의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로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육아를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 희망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역 아동 수가 매우 적은 농촌의 경우, 보육시설 마련의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동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 도우미제도의 시행을 검토하는 등 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야 함.

- 다섯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함.

- 남편 및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 이해, 관련 취업기술 전수, 취업교육 참여 협조 등은 원활한 한국 정착뿐만 아니라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통계 인프라 개선 및 중장기 과제

- 결혼이민자 노동시장 문제는 현재보다는 향후에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정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종합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 인프라 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애주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임.

- 이는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이 결합된 형식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통계 인프라의 구축과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leeky@kli.re.kr / 02-3775-556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